

## 위험한 도박 혹은 튼튼한 조커



한승혁



김진우

### KIA 선동열 감독 을 시즌 김진우·한승혁 중용 예고 ... 활약 관심

KIA 타이거즈의 '위험한 도박'이 성공할까?  
 선동열 감독의 부임과 함께 KIA는 2012시즌 마운드 무한 경쟁을 앞두고 있다. 치열해진 경쟁 무대에서 김진우·한승혁이 선 감독의 조커로 주목 받고 있다.  
 선 감독의 눈길을 잡은 두 우완 정통과 투수는 고교 시절 메이저리그의 러브콜을 받은 남다른 재목들이지만, 방향과 부상으로 2012시즌 두 선수의 거취는 불확실해졌다.  
 계속된 방황으로 임의탈퇴 신분이 됐던 김진우는 지난해 봄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4년 가량의 긴 공백기가 있었고, 잦은 이탈 속에 선수단의 신뢰를 잃었던 만큼 김진우의 복귀를 놓고 팀 위크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김진우는 마무리 캠프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사람들의 우려를 씻고 선 감독의 마음을 얻었다. 12월 휴식기에도 방황은 없었다. 체지방

10% 감량에 성공한 김진우는 전진훈련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선 감독도 "밸런스가 완벽하지 않지만 지난 마무리 캠프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전진훈련에서의 모습이 기대가 된다"고 호평했다.  
 타이거즈 강속구 군단의 새 멤버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승혁도 KIA에게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고교시절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린 한승혁은 커브와 슬라이더 등을 구사하며 2011년 신인 드래프트 최대액으로 뽑혔지만 부상과 메이저리그 진출설로 드래프트 현장에 정식 초대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발 정보를 활용한 KIA는 다른 구단의 허를 찌르고 1라운드에서 한승혁을 선택했다.  
 우여곡절 끝에 KIA 유니폼을 입은 한승혁은 입단과 함께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어렵게 선택한 카드인 만큼 한승혁을 보는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재활조 탈출을 앞둔 한승혁을 보는 시선은 이제 '기대'로 바뀌었다. 착실하게 재활 과정을 밟은 한승혁은 지난 12월 신동수 코치, 투수 이범석과 함께 따뜻한 판에서 훈련을 하며 본격적인 피칭을 위한 준비운동을 마쳤다.  
 선 감독은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판에서 직구 위주의 피칭을 지시했다"며 "한승혁의 공에 힘이 있다. 직구 하나만으로도 1이닝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좋은 공을 가졌다"고 칭찬했다.  
 밸런스 잡기와 실전 감각 회복이라는 쪽같은 숙제를 안고 있지만 타고난 투수 김진우와 한승혁은 불확실한 카드에서 선 감독의 조커로 떠올랐다.  
 김진우와 한승혁이 2012시즌 KIA 마운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발롱도르 해트트릭... 메시 '전설'이 되다

FIFA 3년 연속 수상  
감독상은 파르디올라



'전설' 앞에서 리오넬 메시가 10일 스위스 콘그레스하우스에서 열린 2011 국제축구연맹(FIFA) 시상식에서 발롱도르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3년 연속 발롱도르를 품에 안았다.  
 9일(현지시간) 세계적인 축구스타인 리오넬 메시가 2011년 국제축구연맹(FIFA)의 발롱도르 상을 받았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 소속인 메시(24)는 수상 후보로 경쟁했던 팀 동료 사비에르 에르난데스(스페인)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를 제치고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메시는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메시는 이날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은 뒤 "너무 큰 기쁨이다. 이상을 친구들과 팀동료인 사비에와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FIFA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 선수상을 3년 연속 받기는 메시가 처음이다.  
 감독상에는 바르셀로나 사령탑 호세프 과르디올라(스페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영국)과 레알 마드리드의 주제 무리뉴(포르투갈)를 따돌리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여자 선수 부문에서는 2011년 여자월드컵 우승을 이끈 일본의 사와 호마레가 최고 선수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연합뉴스

## 돌아온 '아스널 킹' ... 앙리 결승골 쏘다

아스널 FA컵 32강 진출  
박주영은 또 벤치만 지켜

아스널이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에 올랐으나 이 팀에 소속된 골잡이 박주영은 끝까지 벤치를 지켰다.  
 아스널은 10일(한국시간) 영국 에미리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컵 64강전에서 티에리 앙리가 결승골을 터뜨려 1-0으로 이겼다.  
 미국 프로축구 뉴욕 레드볼스에서 아스널로 2개월 동안 임대된 앙리는 후반 32분 페널티 지역에서 감각적인 움직임으로 오프 사이드 트랩을 뚫고 알렉스 송의 스루패스를 받아 골을 터뜨렸다.  
 한 차례 찾아온 기회를 결승골로 연결해 왕년의 특급 골잡이로서의 위용을 유감없이 자랑했다.  
 앙리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아스널에서 380경기에 출전해 226골을 터뜨려 구단 최다득점 기록을 보유한 '전설'이다.  
 박주영은 교체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아르센 벵거 감독의 호출을 받지 못했다.  
 박주영은 아스널에서 뛰기 시작한 이후 유럽 챔피언스리그와 칼링컵 등 3경기에 출전했을 뿐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한 차례도 나서지 못했다.  
 연합뉴스



"주영아 봤나?" 아스널의 티에리 앙리가 10일 에미리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컵 64강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KBO, 신인 드래프트 추첨제 보류

9개 구단 대표들 이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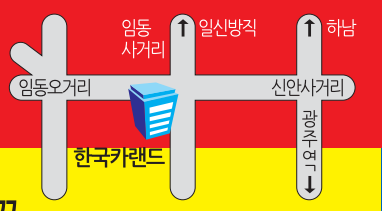
프로야구 9개 구단 대표들이 신인 지명 방식에 이견을 보여 201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추첨제가 전면 보류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일

2012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신인 지명 변경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달 KBO와 9개 구단 단장들로 이뤄진 실행위원회는 2013년부터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 한해 전년도 성적 하위권 팀을 대상으로 지명 추

첨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인 지명 변경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일부 구단 대표들이 현재 전면 드래프트 방식을 폐지하고 지역 연고 우수 신인을 먼저 뽑는 1차 지명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뜻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이사회는 신인 지명과 관련한 방식을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밀양신평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인텐나,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자동차경비일체, 빗대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비뒀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이자가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전국 최저가 판매, 국내 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임동 자동차처리 중간사거리(20번길)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맥과이어스 광택 코팅, 실내용리너, 허부언더코팅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 ▶ 승용 5인 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 RV 5인 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미엔트 3-5만원 무상점검
- 펄싱 펄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